

요르단 선교 편지 (2024.1.21.)

1.

이 땅에서 10년 이상 살다보니, 더 이상 어떤 직업인으로 제 자신을 소개할 필요성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무슬림)과 관계한 지가 8~10년, 혹은 그 이상 오래들 되고, 다들 서로 잘 알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시리아 난민 학생들 100명 정도 가르칠 사범을 찾는 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계하는 사람이 군인 신분이라 갑자기 그곳에서 활동하면 그분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기회는 저의 의도가 아니라서요.

2.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서 오전에는 아랍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닌 곳이 학원이었다면 이번에 배우는 곳은 정식 대학교라서인지, 전과 달리 여러모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배운 데서는 교육만 있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는 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나가는 선생님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혼내기도 하고, 학생이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계속 확인하는 질문도 합니다. 특히 정통 이슬람, 특히 이만(종교 지도자) 출신의 아랍 선생님의 경우, 교육과 양육을 결합해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에게 더 열성적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إعراب**(이아랍)이라는 방식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칠판 앞에서 문장의 구문분석을 쪽~ 쓰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동사, 의문사, 접속사, 형용사...’와 같이 길게 쪽 써 나가는 형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란 구절에 대한 이아랍(إعراب)도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가진 무슬림들 일수록 이 “이아랍”을 쓰는 데,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장은 동사이고, 의문사...’와 같이 칠판에 쓰는 연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에게도 이런 형식으로 가르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건의 연습을 하듯 정말 열심히 쓰고 연습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주로 두 가지 면에서 비난하는데, 그 첫째가 3명의 신을 믿는다는 것이고(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음), 또 하나는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수업중에 열심히, 막힘 없이 이아랍(إعراب)을 하는 무슬림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저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는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말입니다. 코란 구절에 대한 이아랍이 따로 있을 정도라서, 개인적으로 이아랍(إعراب)은 그들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하나의 경건의 연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르단에서 최재원 드림